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통합적 접근*

- 이용자-사서-서비스 관계성을 중심으로 -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the User-Librarian-Service Relationship

최 정 원 (Jeongwon Choi)**

이 승 민 (Seungmin Lee)***

< 목 차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사례 분석

IV.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방향

V. 결 론

요 약: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은 단순한 건축적 배치를 넘어 이용자, 사서, 서비스 간의 다층적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는 복합적인 구조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국내 공공도서관은 현장의 업무를 반영하지 않은 리모델링으로 인해 공간 간 분절, 시야 확보의 한계, 사서 업무 비효율, 서비스 단절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이용자공간-사서공간-서비스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 및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3가지 핵심 공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의 기능적 연속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이다. 이 모형은 현재까지 건축가의 의견이나 정책부서의 가시적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을 현장 사서 중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공간계획, 도서관 동선

ABSTRACT: The space composition of public libraries is a complex structure that operates within multilayered interactions among users, librarians, and services, going far beyond simple architectural arrangement. However, many public libraries in Korea currently face issues such as fragmented spaces, limited visibility, inefficient librarian workflows, and disrupted service delivery, largely due to remodeling projects that fail to reflect on-site operation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proposes a public library space factor model and key considerations that can connect user spaces, librarian spaces, and service spaces. This model is designed to ensure functional continu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se three core spatial components. It is expected that this model will offer a new direction for shifting public library space design from currently driven by architects' perspectives or policy departments' focus on visible outcomes to toward an approach centered on librarians' practical work and the fundamental functions and roles of the library.

KEYWORDS: Public Library, Space Configuration, Space Planning, Library Spatial Flow

* 이 논문은 2024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jardin3560@gmail.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ableman@cau.ac.kr / ISNI 0000 0004 6418 7521)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5년 12월 2일 • 최초심사: 2025년 12월 8일 • 게재확정: 2025년 12월 10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6(4), 253-276, 2025. <http://dx.doi.org/10.16981/kliiss.56.4.202512.253>

※ Copyright © 2025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공공도서관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정보접근과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확장을 위해서는 사서의 역량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물리적 공간구성 또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AI 기반으로 진화하는 정보환경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가상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정보 접근이라는 정보적 역할에 치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교육적, 사회적, 정보적, 문화적 역할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교류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으로서의 물리적 공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다면적인 서비스와 역할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구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건축된 지 30~40여 년이 경과하였으며, 이들 도서관의 공간구성 역시 현재의 정보환경과 공공도서관 역할을 지원하기에는 폐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에 최근 공공도서관의 신축과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간구성의 설계와 계획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을 설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진화하는 도서관의 역할 수행과 서비스의 제공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건축 측면에서의 미감이나 디자인 중심의 구성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공간 계획 과정에서 사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축가의 시각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 공공도서관의 실제적인 운영 효율성과는 동떨어진 도서관 공간이 구현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의 동선이 비효율적으로 구성되거나, 사서의 업무 흐름이 공간적으로 단절되고, 이용자나 시설 관리 또한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서비스 혼선의 상당 부분은 건축 설계자가 아닌 사서가 감당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도서관 운영을 반영하지 못한 도서관 공간구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의 불편함은 이용자들이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사서들이나 학계에서도 산발적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실제 공공도서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사서의 의견은 여전히 도외시되고 있으며, 정책부서와 건축가의 논의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공공도서관 공간을 단순한 자료 열람실로 보지 않고, 커뮤니티와 이용자, 그리고 사서의 운영 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합공간으로 보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Aabø & Audunson, 2012; Dalmer et al., 2022; Hider et al., 2023). 이들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와 이용자 경험, 커뮤니티 구성원 사이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면적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내 공공도서관 공간 연구는 그동안 열람 환경, 이용자 만족 등의 물리적 요소와 이용자 경험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공간구성이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은 이용자의 체류 방식뿐만 아니라, 사서의 업무, 서비스 제공 효율성,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 관점의 분석은 공간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도서관으로서의 공간구성이 아닌 건축가의 성향에 따른 아름다운 도서관, 미적 도서관으로의 공간구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등 공식 지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공도서관 설계와 리모델링 과정에 적용 가능한 세부 공간구성 기준이나 주체 간 상호작용을 반영한 프레임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최적화된 공간구성이라는 사서들의 요구와 건축가 중심의 공간 계획, 정책부서의 디자인적 건축 계획 사이에는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은 단순한 물리적 배치가 아니라 이용자, 사서, 서비스라는 3가지 주체의 요구와 기능적 흐름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통합되고 조정되는가의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도서관 4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공간구성의 특징과 구조적 제약, 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점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도서관 공간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이용자, 사서, 서비스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또한 이들 요인들이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이용 경험 속에서 어떻게 상호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공공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구성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지속가능하고 기능적인 공간 설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도서관의 의의와 역할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규정된다. 이는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될 때의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여 공중의 교양과 조사·연구 및 레크리에이션 등 그 이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정의와 비교할 때, 현대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기반의 평생학습기관으로 그 기능이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IFLA-UNESCO의 Public Library Manifesto 또한 공공도서관이 지식·정보·문화 접근의 평등을 실현하는 공적 기관이며, 지역사회의 통합, 문화활동, 시민성 형성의 중심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다(IFLA & UNESCO, 2022). 이는 공공도서관의 다층적 기능 수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 정책 또한 현시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지역사회 기반의 복합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있다.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정보제공 기관임과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생활밀착형 문화교육 시설, 작은도서관이나 분관을 포괄하는 정보 서비스의 허브로 위치시키며,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정보기관일 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적 기능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 시설임을 명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이러한 기능적 확장은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자료이용을 위한 장소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기반 시설로서 다양한 경험의 발생처인 복합공간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COVID-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보서비스가 급속하게 확대되었음에도, 공공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은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Hider et al.(2023)은 공공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이 사람들의 일상 속 정서적 안정과 지역사회 연결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장소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면서, 공공도서관이 장소성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기관임을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도 공공도서관의 기능 확장 및 정보서비스의 진화가 이루어져 왔다. 배동식(2019)은 공공도서관에서 문화, 교육, 커뮤니케이션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열람 중심 구조만으로는 이용자의 다양성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노영희와 신영지(2019)는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의 확대, 이용자 주도 학습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공공도서관이 자료 중심 공간에서 이용자 활동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공간 계획에 있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현오와 김용승(2020) 역시 최근 국내 공공도서관 40개관의 면적 비율과 공간구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공간이 과거의 전통적인 구성에 비해서 공용 부문과 자료이용 부문의 면적 비율이 증가하고, 리딩데크(reading deck), 내부 계단을 통한 수직적 연결 등 이용자의 체류와 이동을 동시에 유도하는 새로운 공간 요소가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공공도서관은 점차 능동적 정보 탐색, 자율적 체류, 참여형 활동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의 의의, 목적, 기능은 계속해서 확장, 진화하고 있으며, 정보환경의 전환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도 능동적 공간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공간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이용자와 사서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현재의 공공도서관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도서관 공간구성의 의의

도서관의 공간은 단순히 건축적 배치가 아니라 이용자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성재, 2023). 최근 공공도서관 신축

혹은 리모델링에서는 과거에 비해 공용 부문과 자료이용 부문의 공간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리딩데크(reading-deck), 내부 계단식 서가와 같은 새로운 공간 요소가 도입되는 등 공간구성 방식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김현오, 김용승, 2020). 이외에도 여러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변화가 단순한 면적 증가가 아니라 도서관 내부 동선과 공간 중심성의 재배치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공간이 정보서비스와 도서관 이용 방식의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의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도서관 선진국에서는 도서관 공간구성을 다양한 기능 공간의 조합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다양한 기능 사이의 비율과 관계 설정을 중요한 공간 계획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Wisconsin 주 교육부의 『Public Library Space Needs: A Planning Outline』에서는 공공도서관 공간을 장서 공간(collection space), 기술·장비 공간(technology space), 이용자 좌석 공간(reader seating space), 사서업무 공간(staff work space), 회의·행사 공간(meeting space), 특수공간(special use space), 비배정 공간(nonassignable space) 등 7개의 공간으로 구분하며, 각 공간의 규모와 상호관계를 공간 계획의 기본 틀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은 공공도서관 공간이 이용자 중심을 넘어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 미래 확장성을 모두 포괄하여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서는 이용자의 열람과 독서 활동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읽기공간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정태경, 서희, 2022). 반면, 사서 공간은 개방된 좁은 공간이나 후면부 업무실로 한정되는 사례가 많아, 이용자 중심 공간 확대가 사서 공간의 가시성과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도서관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서의 역할과 서비스 흐름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Aabø와 Audunson(2012)은 공공도서관이 세대, 계층, 문화가 다른 시민들이 함께 어우르는 만남의 장소이자 공적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 하면서, 이러한 기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구성 뿐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운영되는 서비스와 직원의 상호작용 방식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 공간이 단순히 이용자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사서의 업무, 서비스 운영 방식, 이용자 행태가 밀접하게 얽혀 구성되는 관계적 구조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도서관 정책에서도 공공도서관 공간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계획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시적 성과로 도출될 수 있는 이용자 공간 확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사서와 서비스 공간의 비중이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은 공공도서관 공간을 자료이용 부분, 문화·교육 부분, 업무관리 부분, 공용 부분, 기타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료이용과 문화·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사무실, 회의실, 직원휴게실 등 업무관리공간의 적정 면적과 배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공도서관 건축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자료·열람공간과 문화교육공간의 비중은 커지는 반면, 사서 업무공간과 백오피스

공간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후면부에 배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 측면의 요구와 물리적 디자인 요소에 비해 사서의 업무 동선, 서비스 운영 흐름, 장기적인 서비스 확장 가능성이 공간 계획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의 운영을 위한 공간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치 측면에서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대부분은 사서의 업무 공간 부족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사서의 업무공간과 서비스 운영 공간, 그리고 서비스 제공 구조 자체가 한정된 도서관 공간 속에서 어떻게 배치되고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서 소요공간의 축소와 고립, 공용공간 중심의 개방형 구조, 복합화, 다기능화된 서비스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은 이용자 공간뿐만 아니라 사서 공간과 서비스 공간을 연계한 다면적 구조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도서관 공간구성의 문제

현재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역할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 분야 관점에서의 전통적인 공간구성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용자를 위한 공간, 이용자의 정보자원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은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정보활동 지원은 도서관의 3요소인 사서, 장서, 시설 및 설비가 지식정보를 중심으로 연계될 때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을 구성하는 모든 요인들, 도서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지식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공공도서관에서는 장서, 사서, 시설과의 연계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뮤니티 구성원을 위한 장소만을 마련하거나, 미적 측면에 치중하여 공간을 꾸미는 방향으로 도서관의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계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이용자의 실제 이용행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 시설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일부 공간에 집중적으로 머무르며, 소음, 시야, 심리적 안정감 등 환경적 요인이 공간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성재, 2019). 또한 청소년, 유아, 성인 등 세대별 요구를 반영한 전용공간이 미흡하거나, 그룹 활동과 개인학습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 설계가 결여되어 있어서 실제 이용자 만족도가 저하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서유진, 2022; 지선, 장윤금, 2017).

사서의 업무 측면에서는 업무를 위한 공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서의 업무가 자료관리를 시작으로 프로그램 기획, 이용자 상담, 커뮤니티 운영 등으로 확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많은 사례에서는 사서 전용의 백오피스, 회의공간,

휴게공간, 협업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김현오 외, 2018; 배동식, 2019). 도서관 장서와 시설·설비의 운용,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커뮤니티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등 공공도서관의 핵심적인 역할에 있어서 사서의 업무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공공도서관과 이용자, 커뮤니티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서 업무 공간의 축소 및 가시적인 이용자 공간에 대한 집중과 확대는 사서와 이용자의 상호작용과 서비스 조정 기능이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서비스 공간 측면에서는 유연성 및 기술 인프라 미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메이커스페이스, 디지털 미디어실 등 체험형, 창작형 공간의 도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도서관에서는 예산, 정책 등의 이유로 여전히 작은 공간으로 구획된 고정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제한된 전력, 환기, 안전 인프라, 장비 유지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장윤금 외, 2019). 이와 함께, 디지털 접근성, 다양한 리터러시 제공, 기술윤리 등의 정책적 요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적 공간과 운영체제로 연결하는 공간 설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기도 한다(국립중앙도서관, 2023). 고정형 구조가 갖는 문제와 유사하게, 도서관 공간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의 결여가 장기적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노후화된 여러 공공도서관은 기존의 고정형 서가 배치와 비효율적 동선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리모델링 시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김현오, 김용승, 2020).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도서관의 공간 설계가 단순히 현재의 이용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의 정보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성과 관리 전략을 포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도서관들이 디자인이나 미적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서의 업무와 서비스가 분리된 공간구성, 이용자의 이용 패턴이 반영되지 않은 동선, 도서관 운영 요인들에 대한 미반영 등은 결국 공공도서관의 장기적 공간 활용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각각의 공공도서관은 고유한 상황 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 정책, 목적 등에서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을 정책적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축가 중심의 공간구성이 아닌, 공공도서관의 운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여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요인들이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반영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중심 공간, 서비스 중심 공간이 사서의 업무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적인 공간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사서, 서비스의 관점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공간을 설계·구성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사례 분석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인 서고, 열람 중심 모델을 넘어, 이용자의 체험, 학습,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개방적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공공도서관의 공간 설계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은 단순한 물리적 배치가 아니라, 이용자의 공간 이용 방식, 사서의 업무 흐름, 그리고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지적, 복합적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공간의 핵심 요인으로 이용자 공간, 사서 공간, 서비스 공간의 세 범주를 설정하고,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이들 요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 A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A도서관은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공공도서관 공간을 전환한 사례 중 하나이다. 이 도서관은 건축적 정체성과 공간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이용자 중심, 사서 중심, 서비스 중심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간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상 5층 규모의 도서관이며 특히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이어지는 층별 공간구성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지식의 시간적 서사를 공간적으로 구현하여 단순한 물리적 공간구성을 탈피하고 있다.

이용자 공간 측면에서, A도서관은 층별 구성을 통해 이용 경험의 단계성을 표현하고 있다. 상층부는 귀중자료실과 조용한 열람 공간으로 구성되어 과거의 기록과 전통적인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중간층은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주제별 자료실과 개방형 열람 공간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정보이용과 탐구 활동을 지원하는 중심영역으로 기능한다. 하층부는 디지털 정보서비스 공간과 창의활동실, 미디어 학습실 등으로 구성되어, 미래 지향적 학습과 창작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상층부로 갈수록 사색적이고 정적인 분위기, 하층부로 내려올수록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이용자의 이동 자체가 시간적 흐름과 공간적 경험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또한 옥외정원과 복합문화공간, 휴게공간이 연계되어 있어, 이용자는 자연환경과 도서관 내부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며 심리적 개방감을 경험할 수 있다. 무장애 설계가 전 층에 적용되어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이 보장되며,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통한 동선 유연성도 확보되어 있다.

사서의 업무 공간 측면에서, A도서관은 층별 기능에 따라 행정·정보서비스 부서와 문화·교육 부서를 분리 배치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행정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사무공간은 출입이 용이한 하층부에 위치해 있으며, 도서관의 예산, 자료관리, 정보서비스 전반을 관리한다. 반면 문

화,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는 중간층의 자료실 인근에 배치되어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각 자료실에는 입구마다 개방형 사서데스크가 배치되어, 사서가 열람실 전반의 이용자 활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된 구조로 공간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공간 배치는 사서가 이용자 문의에 즉각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층의 세미나실과 학습공간은 사서 주관의 교육 및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사서의 전문성이 공간 내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행정공간은 층별로 분리되어 있으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부서 간 협업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디지털 서비스 부서는 미디어공간과 연계되어 정보기술 기반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공간적 분리 속에서도 운영의 연속성을 최대한 확보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서비스 공간 측면에서, A도서관은 기존의 대출과 열람 중심 기능에서 벗어나 문화, 학습, 휴식, 창작을 결합한 복합문화형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1층에는 카페, 전시공간, 시민 커뮤니티 라운지 등 복합문화공간이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관을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닌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확장시켰다. 디지털 정보공간은 노트북, 태블릿 이용존, 미디어 교육실, 전자자료 열람대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의 자율적 학습과 창작을 지원한다. 또한 옥외정원은 도서관 내부와 자연경관이 연결된 형태로, 이용자가 경관을 감상하며 독서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개방적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공간구성은 정보 이용, 창작, 휴식이 하나의 연속적 서비스로 통합된 형태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기능이 물리적 공간을 통해 구현된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A도서관은 역사적 건축물의 시간성을 보존하면서, 상층부의 전통적 지식공간에서 하층부의 디지털 창작공간으로 이어지는 공간적 흐름을 통해 지식의 진화를 표현하였다. 또한 무장에 설계, 개방형 문화공간, 통합적 사서 운영체계 등은 향후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B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B도서관은 도심 인접 자연녹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4개층으로 구성된 공공도서관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이자 전 세대 이용자를 포괄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관 이후 독서문화,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공공도서관 운영 혁신 분야 등에서 다양한 수상을 하였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B도서관의 이용자 공간은 연령대별, 활동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되어 있다. 어린이, 가족 단위 이용자를 고려해 어린이 전용자료실을 1층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였으며, 개방된 구조와 독립된 활동 영역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성인 이용자를 위한 종합자료실, 조용한 열람공간, 문화공간 등은 층별로 분산 배치되어 이용 목적에 따라

자연스럽게 동선이 구분되며, 소음 차단 및 학습 집중도 또한 강화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창작 및 미디어 활용을 위한 창작 스튜디오 공간은 청소년과 성인을 중심으로 이용되는 핵심 활동공간으로, 영상녹음, 영상편집 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제작 활동을 지원한다. 이 공간은 열람 중심에서 참여와 생산 중심으로 확장되는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서비스 방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도서관 상부에는 정원, 휴게 라운지 등 자연경관을 활용한 외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옥외 공간구성은 단순한 휴식 기능을 넘어 독서, 사색, 소규모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B도서관의 사서 업무공간은 층별 기능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안내, 자료 관리,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공간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자료실 입구에는 개방형 사서 데스크가 배치되어 있어 사서가 열람 공간 전반을 시야 내에 두고 이용자의 활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다. 이는 사서가 이용자의 문의와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실 내 질서 유지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의실, 다목적실, 세미나실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사서가 다양한 행사, 강좌, 독서 프로그램, 디지털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기 용이하다. 특히 창작 스튜디오 등 디지털 기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사서의 서비스 역할을 커뮤니티 학습과 창작 지원으로 확장,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사무공간은 조용한 구역에 배치되어 행정업무와 자료 관련 업무 수행 시 집중도를 높이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층별 부서 간 협업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간적 분리 속에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의 핵심 요인들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통적인 대출, 열람 중심 서비스를 넘어, 학습, 문화, 휴식, 창작이 통합된 복합문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하층에는 가변형 문화,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공간들은 가변형 벽체(folding door)를 통해 소규모 회의실부터 대규모 강연이나 행사 공간까지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한 공간 구조는 커뮤니티 모임, 워크숍, 강좌, 영화 프로그램 등 복합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공공도서관의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소규모 공연과 영화 등 상영이 가능한 공연형 프로그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의 문화행사, 독립영화 상영, 작은 음악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도서관의 문화 지향적 서비스를 확대하며,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참여 경험을 다층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정보공간은 전자정보 열람대를 포함해 노트북, 태블릿 기반 학습존, 미디어 제작실 등을 갖추고 있어 개별 학습뿐만 아니라 창의적 생산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정보 문화 서비스 기능이 종합적으로 구현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B도서관은 세대별, 활동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 세분화, 창의 활동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공간, 가변형 공간을 통한 문화교육 등 서비스 확장성, 포용적 접근성, 사서의 시야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업무환경 등을 통해 현대 공공도서관이 지향하는 복합문화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특히 '열람, 학습, 창작, 문화, 휴식'을 하나의 연속적 경험으로 연결한 공간구성은 향후 공공도서관 공간 설계와 운영 전략의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3. C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C도서관은 3층 규모의 도서관으로, 비교적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노후화된 공간을 새롭게 정비하고 좌석 수를 확장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 공공도서관 사례이다. 그러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좌석과 서가의 단순 확대가 중심이 되면서, 이용자 편의성, 접근성,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새로운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이용자 공간 측면에서, 리모델링 이후 C도서관은 전체 좌석 수를 크게 늘리며 체류형 학습자를 수용하는 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공간 곳곳에 면학 가능한 자리와 개별 좌석을 충분히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학습과 독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좌석 확충이 계단식 서가, 경사진 구조와 결합되어, 리모델링 후 일부 열람구역은 경사진 단에서 좌석과 서가가 함께 배치되었다. 이로 인해 이용자는 이동 과정에서 경사면을 반복해서 오르내려야 하며,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신체적 피로감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고, 옆, 앞 열람자의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시야에 들어와 정적인 열람환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실이 중간층에 배치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유아 혹은 초등 저학년 이용자는 보호자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고층 이동과 내부 경사형 계단은 어린이 안전 및 접근성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내부 계단의 경사 역시 비교적 높은 편으로, 유모차, 휠체어,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처럼 C도서관의 리모델링은 외형적으로 이용자 공간을 확대한 듯 보이지만, 단계가 크게 드러나는 공간구성, 동선의 안전성, 접근성, 장시간 체류 등의 이용자 공간의 본질적 기능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공간구성으로 볼 수 있다.

C도서관의 리모델링은 주로 이용자 공간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서 업무 공간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공간에서 가구 교체, 시청각실 정비 등 부분적 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업무환경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계단식 서가 구조와 경사형으로 배치된 좌석은 사서의 모니터링과 동선 관리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가가 경사면을 따라 점진적으로 배치되면 사서 데스크에서 열람실 전반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사서가 층간 혹은 경사진 공간을 오가며 이용자 문의에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수 있다. 또한 어린이실이 중간층에 위치하는 구조 역시 어린이 담당 사서에게 부담을 준다. 어린이 이용자는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한데, 고층 위치는 입퇴실 관리가 어렵고, 프로그램 운영 시 사서가 자료와 기자재를 이동시키는 데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동선이 단절되면 사서 간 협업도 원활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C도서관 리모델링은 이용자 중심의 좌석 확충은 이루어졌으나, 사서의 운영 동선, 시야 확보, 업무 흐름을 고려한 계획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비스 공간 측면에서, C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일부 공간의 노후 설비를 개선하고, 다목적 공간과 시청각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프로그램, 강연, 행사 운영 등 서비스 제공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는 동선의 높낮이, 계단 구조, 층간 이동 부담이 크게 작용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어린이실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이 공간이 중간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와 이동 모두 참여 전후 이동이 불편하고, 유모차와 이동약자 이용률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후 좌석 중심의 공간 확장이 이루어지며, 창작활동과 소규모 커뮤니티 등 다양한 복합문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공공도서관이 지향하는 창작과 교류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흐름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서비스 공간의 일부는 개선되었으나, 서비스 접근성, 이용 동선, 프로그램 운영 편의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리모델링 이후 구조적 제약이 강화된 측면이 존재한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C도서관은 리모델링을 통해 좌석 수 증가, 일부 시설 정비, 공간 재배치 등의 긍정적 변화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변화가 이용자 접근성, 이동 안전성, 사서 운영 효율, 서비스 접근성을 오히려 제약하는 공간 구조를 낳고 있다. 특히 계단식 서가와 경사형 좌석 배치, 어린이실의 3층 위치, 사서 모니터링의 어려움 등은 이용자, 사서, 서비스라는 공공도서관의 핵심 요소들이 공간 상에 유기적으로 연결되기보다, 공간 확장과 디자인 중심의 리모델링에 치우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D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지하와 지상 5층 규모의 D도서관은 고유한 건축물을 기반으로 도서관 기능을 재구성한 공공도서관으로, 리모델링 과정에서 계단식 서가와 대형 복층 열람석, 문화 활용이 가능한 스크린 등이 도입되며 시각적, 문화적 경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공간이 개편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체류형 환경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이용자 동선, 사서 운영, 서비스 운영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리모델링 이후 D도서관은 5m 높이의 벽면 서가와 계단식 열람석을 도입해, 이용자가 책과 공간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구현하였다. 일반자료실 1과 일반자료실 2를 연결하는 구간에는 계단식 좌석과 서가가 결합된 구조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체류하고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시각적 매력과 문화적 분위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되고 있다. 반면 D도서관의 계단식 구역은 장시간 독서 및 학습에 적합하지 않은 경사 구조이며, 좌석 이동 시 잡음이 발생하기 쉽고 시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계단식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노약자,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이용자에게는 이동 자체가 제한적이며, 계단 구간을 중심으로 조용한 열람환경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개관 초기에는 소음, 열람좌석 불편에 대한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다. 이후 계단식 서가 앞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추가적으로 열람공간을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게 했다는 긍정적 변화도 가져왔지만, 이 스크린이 열람석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열람좌석으로 이용되던 계단식 좌석을 문화공간으로 단순히 전환시킨다는 점에서 문화행사와 열람 목적 간 기능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시각적, 체험적 환경은 강화되었으나 집중이 요구되는 학습환경과 문화 환경이 충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사서 공간 측면에서, D도서관의 내부 구조는 디자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서 업무 측면에서는 다소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계단식 서가와 복층 구조는 사서의 시야 확보를 제한하며, 열람실 전체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계단 뒤편, 경사면 좌석, 벽면서가 등의 구간은 사서가 이용자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또한 공간 곳곳에서 문화행사, 전시, 상영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서는 조용한 열람 환경 유지와 오픈형 문화 서비스 운영이라는 상반된 업무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사서 사무실이나 운영실이 주요 열람동선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프로그램 준비 및 자료 이동 과정에서 동선의 복잡성이 생기고 업무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는 공간구성으로 볼 수 있다. D도서관은 공간경험 중심 설계라는 강점을 지니지만, 사서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동선, 시야 확보나 업무 분리성 부족이라는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 D도서관은 벽면 서가와 계단식 열람석에 대형 스크린을 도입한 것으로 영화 상영, 공연, 토크 행사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오픈형 복합문화 공간을 구축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을 단순한 독서 공간이 아닌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했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확장이 공간의 구성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도서관의 공간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문화행사 진행 시 소음, 빛, 동선이 열람석에 그대로 전달되며, 역으로 조용한 학습 목적 이용자는 행사 진행에 의해서 집중이 방해될 수 있다. 또한 계단식 구조로 인해 모든 이용자가 프로그램 장소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특히 이동약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D도서관은 고유한 건축물의 보존과 현대적 공간경험을 결합한 독창적 공공도서관으로, 벽면 서가, 계단식 좌석, 대형 스크린 등 시각적이고 문화적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인 중심의 개편은 이용자, 사서, 서비스 측면에서 기능적 불편을 유발하기도 한다. D도서관의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사서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으며, 미적, 디자인적

공간구성에 치중한 결과로 인해 아름답지만 이용이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5. 시사점

4개 공공도서관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은 단순한 면적 배분이나 좌석 수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사서-서비스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공간 속에 조직화하느냐의 문제이다. 특히 A도서관과 B도서관이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 체계 위에서 공간의 연계성과 기능적 유연성을 확보한 반면, C도서관과 D도서관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도입된 디자인 요소가 이용자 접근성, 사서의 운영 효율, 서비스의 공간적 분리라는 새로운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C도서관과 D도서관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현장 사서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으며, 도서관 운영이라는 측면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는 건축 분야 주도의 공간 설계, 미적인 가시적 결과에 집중하는 정책 방향으로 인해 공공도서관 이용에서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용자 공간과 관련하여, A도서관과 B도서관은 층별, 기능별 구성과 옥외정원, 휴게라운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체류 경험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상층부의 정적인 열람환경과 하층부의 디지털, 창작 공간을 연속선상에서 계획한 A도서관의 구조, 연령이나 활동성을 유형별로 고려하여 공간을 세분화하면서도 자연경관과 연계한 B도서관의 구성은 이용자의 접근성, 쾌적성, 심리적 안정감을 중심으로 공간을 조직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반면 C도서관과 D도서관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계단식 서가, 경사진 열람석, 고층부 어린이실 배치는 디자인과 관련하여 시각적으로는 인상적일 수 있으나, 동선의 안전성, 장시간 열람의 편안함, 이동약자 접근성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어린이실의 상층부 배치와 경사형 서가, 좌석의 결합은 보호자 동선과 안전 관리 측면에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이는 공공도서관의 기본 기능인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접근 가능한 공간이라는 원칙과 상충한다고 볼 수 있다.

사서 공간 및 운영 측면과 관련해서, A도서관과 B도서관은 층별 기능에 따라 행정, 문화, 디지털 서비스 부서를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각 자료실 입구에 개방형 데스크를 둬서 사서가 이용자 행태를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하고 있다. 이는 사서 공간이 단순한 백오피스가 아니라 운영의 허브이자 이용자와 서비스 사이의 매개로 기능하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C도서관과 D도서관에서 나타나는 계단식 서가, 경사형 좌석 구조는 사서의 시야를 단절시킬 수 있고, 이용자 모니터링과 안전관리에 대해서 특히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서관 신축이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용자 좌석 수나 시각적 효과가 우선되다 보면, 사서의 업무 동선과 서비스를 위한 공간구성이라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서비스 공간 측면은 공공도서관이 추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연계하여 도서관 공간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카페, 전시공간, 휴게공간 등은 과거에는 여가 공간으로 인식되어 도서관의 장서, 주요 시설, 설비와 분리된 공간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공간은 이용자들의 정보적 요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기보다는 서비스 확장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어 도서관 내에서 열람, 학습, 창작, 문화, 휴식을 하나의 연속적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공간은 사서의 업무, 서비스와의 연계, 이용자의 동선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에만 그 기능이 극대화된다. 이들 공간이 도서관의 근본적인 역할과 동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도서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D도서관의 계단식 열람석에 대형 스크린을 도입한 복합문화공간은 영화 상영, 공연, 토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열람석과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아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동선 또한 열람이나 학습 활동 공간과 충돌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다변화될수록, 서비스 공간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이 아니라, 이용자 공간과의 거리, 분리 정도, 사서의 운영 동선, 안전과 접근성 등 도서관으로서의 공간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프라로 설계되어야 한다.

최근 다수의 공공도서관 신축과 리모델링은 사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서관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공간구정보다는 건축 디자인에서의 최신 유행이나 건축가의 취향에 따른 공간구성을 주로 반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와 계단식 좌석, 높은 천장고는 사진 촬영이나 홍보 이미지 측면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 공간에 따라서는 계단식 서가가 도서관의 협소한 공간이라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으며,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이끄는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 도서관의 고유한 상황에 대한 고려, 도서관의 기능에 대한 반영이 없이 유행에 따른 디자인 측면을 강조하여 공간을 구성하게 되면, 이용자와 서비스,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사서의 업무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또한 장서의 밀도, 열람환경, 사서와 이용자의 동선,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동시에 제약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과 관리의 불편함은 건축 설계자가 아닌 사서와 이용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몫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공간구성에 있어서는 사서의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사서들 역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과 설계를 주도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은 ‘이용자 - 사서 - 서비스’의 연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 접근성, 사서의 운영 효율성, 서비스 전달 공간이 균형 있게 연계되면 이용자의 활용성, 서비스 접근성, 업무 효율성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특정 디자인 요소나 가시적 공간 확충에 치우친 경우, 이용자 경험, 사서의 업무, 서비스 운영 간에 간극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도서관의 핵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의 공간은 어느 한 주체만을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공간, 사서 공간, 서비스 공간이 서로를 매개로 작동하는 상호의존적 구조로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IV.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방향

1. 공간구성의 배경

최근 들어 국내 공공도서관은 양적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어왔지만, 상대적으로 협소한 연면적과 한정된 인력 속에서 복층 구조와 복합 기능을 수용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발표한 2025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4)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작은 도서관을 제외한 전국 공공도서관은 1,296관이며, 1관당 봉사 대상 인구는 39,519명으로 4만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도서관의 양적 증가로 접근성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도서관 1개관이 담당해야 하는 봉사대상인구는 여전히 많은 편이라는 점에서 공공도서관 1개관에 다층적인 기능과 서비스를 압축적으로 담아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공간 규모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반의 공공도서관은 소수의 대형 대표도서관과 다수의 중·소규모 관으로 구성된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2018)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의 유형별 평균 연면적을 국립도서관 약 32,048㎡, 일반 공공도서관 2,548㎡, 작은도서관 108㎡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는 대도시나 주거 밀집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이 상대적으로 작은 연면적 속에 자료이용, 문화교육, 커뮤니티 등의 기능을 압축 배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혜은 외, 2021).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협소하지만 복합적인 공간으로서의 방향이 전제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은 공공도서관 규모를 대체로 2,500㎡ 미만 소규모관, 2,500~5,500㎡ 중규모관, 5,500㎡ 이상 대규모관으로 구분하면서, 봉사대상 인구 규모에 따라서 인구 1,000명당 40~70㎡의 면적 기준을 차등 적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건립 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3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활성화 지원 최종보고서에서는 지자체 재정과 대지 여건의 한계로 권장 면적에 크게 미달한 도서관이 다수 존재하며, 그 결과 수직 동선 위주의 복층 구조, 한 층에 여러 기능을 과밀하게 수용하는 평면, 장래 확장 여지가 부족한 설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 공공도서관은 넓은 단층 플로어보다는 ‘좁은 대지 위의 다층 구조’라는 전형을 보이며, 층간 동선 계획 및 기능별 수직, 수평 연계가 공간구성의 핵심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공간과 인력 요인을 함께 고려하면, 국내 공공도서관은 비교적 작은 연면적, 협소한 대지와 예산 제약으로 인한 다층의 형태와 복합적인 평면, 공공도서관 1개관 당 5명 안팎의 정규직 사서가 여러 층과 기능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인력 구조라는 세 가지 조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가 2023년 기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정책제안서에서도, 2019~2023년 사이 공공도서관 1관당 정규직 사서 수가 4.5~4.7명 수준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도서관 수 증가 속도에 비해 정규 인력 확충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공공도서관

1개관의 봉사대상 이용자 규모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1개관을 운영하는 상근 사서 인력은 대체로 5명 내외에 머무르는 구조가 고착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층별, 공간별로 별도의 서비스팀을 두기 어렵기 때문에, 사서의 시야와 동선을 중심으로 한 공간구성, 한정된 인력이 동시에 여러 서비스 구역을 담당할 수 있는 배치, 작은 공간을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설비 계획이 국내 상황을 고려한 필수적인 설계 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공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서공간, 이용자공간, 서비스공간을 상호 연계하는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공공도서관이 직면하고 있는 협소한 복층 공간, 제한된 사서 인력, 높은 봉사 대상 인구와 같은 국내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에서의 현실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구성에서의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고려사항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은 단순히 물리적 영역을 배치하는 행위가 아니라, 도서관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과 이용자 경험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도서관 공간은 도서관의 철학과 운영 방향성, 서비스 체계를 담아내는 일종의 매개체로서 작동한다. 따라서 공간 설계 단계에서는 이용자, 사서, 서비스라는 세 주체의 역할과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먼저 사서 측면의 공간구성은 도서관의 운영 효율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서 공간은 단순한 사무실 개념을 넘어, 자료 관리와 행정업무, 협업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형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적 업무공간과 공동업무공간의 균형적 배치가 필요하며, 자료 이동과 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관리 동선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중요하다. 또한 장서 관리나 보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보존 공간의 환경적 안정성과 접근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사서의 피로도를 낮추고 업무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휴게공간의 확보 역시 필수적이다.

이용자 측면의 공간구성은 도서관의 본질적 목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 공간은 이용자의 요구와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공공도서관에 방문하는 다양한 연령과 이용 목적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출입구 동선 계획, 쾌적한 열람환경, 충분한 자연채광과 공기 순환, 공간인지성을 고려한 명확한 안내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자들의 공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다감각적 설계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정보 이용 공간을 넘어 문화적 체험 공간으로 확장되는 기반이 된다. 더불어 이용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변형 가구나 이동형 서가를 활용한 자율 좌석 구성 또한 고려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비스 측면의 공간구성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정보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의 확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도서관은 자료 열람을 넘어, 교육, 문화, 커뮤니티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재에도 복합문화기관으로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공간은 프로그램 운영,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하나의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여 많은 경험을 도출하기 위한 가구배치의 유연성, 공간 간의 시너지 구조, 개보수의 용이성 등은 공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또한 정보 기술 인프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반 검색 서비스나 디지털 정보 플랫폼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전력, 통신, 네트워크 구조를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간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AI 기반 환경으로의 전환은 현대 도서관 공간구성이나 공간 활용 방식의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으며,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동 대출 반납 시스템, 자료 추천 서비스, 스마트 서가 등의 서비스가 시행되는 바탕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공간 설계는 기술 확장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통합될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사서의 역할이 단순한 관리에서 크게 확장되는 만큼, 이러한 역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지원 공간의 재구성 또한 요구될 것이다.

또한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시 이용자 동선과 공간 흐름의 고려는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핵심이다. 도서관의 입구에서 출구에 이르는 전체 동선은 논리적이며 자연스러워야 하고, 자료 탐색과 열람, 휴식, 참여 활동이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 간의 시각적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여 이용자가 쉽게 공간의 기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중심 동선과 사서의 운영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하면서도 관리가 편리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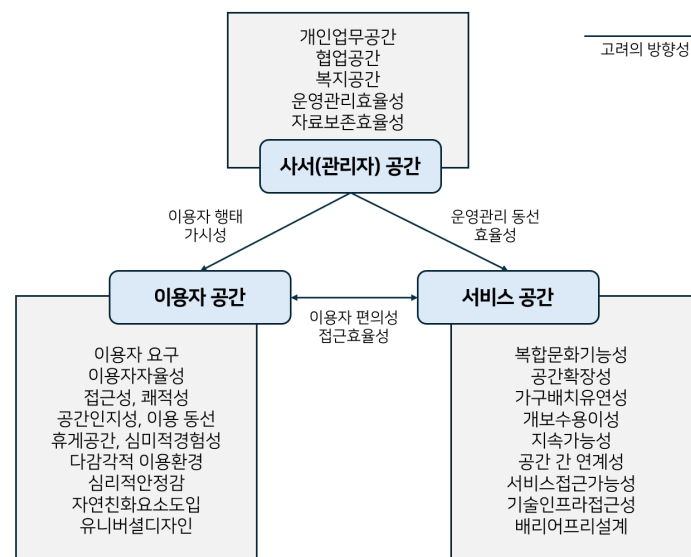
최종적으로 이러한 모든 고려는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은 차별 없이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하는 기관이므로, 무장애 설계는 모든 이용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공간 설계 원칙이자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 내 출입구, 서가, 열람석, 화장실, 안내시설 등은 신체적 제약이 있는 이용자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표식, 음성안내, 점자 표기 등의 세부적 설계 요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의 확보를 넘어, 도서관의 포용성과 공공성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공공도서관 공간의 통합 구성

공공도서관의 공간은 이용자, 사서, 서비스가 서로를 매개로 작동하는 상호작용의 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공간을 통해 서비스를 경험하고, 사서는 그 서비스를 운영하며, 서비스는 다시 이용자와 사서의 관계를 이어주는 구조로 기능한다. 이 과정에서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매개체적 구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서 공간은 폐쇄된 행정 영역이 아니라 이용자와 시각적으로 연결되는 개방형 구조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서의 존재가 서비스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용자 공간은 사서의 지원과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서비스 공간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물리적, 기능적 완충지대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사서 공간과 이용자 공간 사이에는 가시성이, 이용자 공간과 서비스 공간 사이에는 편리성이, 사서 공간과 서비스 공간 사이에는 운영 효율성이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이 세 가지 상호작용이 균형 있게 구성될 때, 도서관 공간은 단절된 기능의 집합이 아닌 통합된 지식 순환 구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결국 공공도서관의 공간은 사서, 이용자, 서비스 공간이 상호 연결된 삼원적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서 공간은 도서관에 대한 모든 관리와 지원의 중심축으로, 이용자 공간은 이용자의 모든 경험의 중심으로, 서비스 공간은 도서관 기능적 확장의 매개로 작용한다. 이 세 축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도서관은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다면적인 서비스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을 이용자, 사서, 서비스의 세 주체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이용자 중심 공간 논의가 간과했던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가시성의 공간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은 향후 공공도서관 설계 및 리모델링 시 도서관 공간구성의 사전 고려사항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모형은 사서 공간을 단순한 지원 영역을 넘어 운영의 허브로 재해석했으며, 서비스 공간은 단순 기능의 집합이 아닌 사서공간과 이용자 공간의 연결 매개체로 보았다.



〈그림 1〉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통합 구성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용자 공간-사서 공간-서비스 공간’의 연결을 바탕으로 한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개념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영역의 집합이 아니라 이용자 행태, 사서의 업무 관리 활동, 그리고 서비스 제공 체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합적 시스템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도서관 공간은 한 영역의 변화가 다른 영역의 경험과 운영 효율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상호의존적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먼저 사서(관리자) 공간은 개인업무, 협업, 백오피스 공간과 더불어 자료보존 및 운영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질과 운영 효율성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한다. 이 영역은 이용자 공간과의 관계에서 ‘이용자 행태의 가시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서비스 공간과는 운영 관리 동선의 효율성을 매개로 연결된다.

이용자 공간은 접근성, 쾌적성, 인지성, 이동 동선, 심리적 안정감, 유니버설 디자인 등 이용자 요구 기반의 공간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최근 공간 트렌드에서 강조되는 다감각적 환경(multisensory environment), 심미적 경험성, 자연친화적 요소 등은 공공도서관의 이용자의 체류 경험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이용자 공간은 서비스 공간과의 관계에서 접근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경험하는 지점이 되며, 사서 공간과는 이용자 행태를 파악하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는 가시성 기반 상호작용을 형성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공간은 복합문화기능성, 공간 확장성, 가구 배치의 유연성, 기술 인프라 접근성, 무장애 설계 등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반시설들이 위치하는 영역이다. 특히 최근 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됨에 따라 서비스 공간은 이용자 프로그램, 디지털 서비스, 창작과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공간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이 공간은 이용자 공간과의 연계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 사서 공간과는 운영관리 효율성을 중심으로 기능적 연동성을 갖는다.

이를 종합하면,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 및 고려사항은 공공도서관의 공간이 ‘이용자-사서-서비스’라는 3개의 축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며 구성된다는 기본 논리를 구조화한 것이며, 공간구성 방안의 분석 기준 및 논리적 연결고리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공간적 특징인 동선의 투명성, 서비스 접근성, 업무효율성, 공간 간 연계성 등은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에서 제안한 세 영역 간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과 각각의 고려사항들은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요소 도출의 실제적 기반이자 공간 설계 및 운영 전략을 제안하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 및 고려사항을 통해서, 현재까지 건축가의 의견이나 정책부서의 가시적 성과 도출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을 현장 사서 중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에 대한 기존 논의가 주로 이용자 중심의 물리적 배치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서공간-이용자공간-서비스공간의 3개 요인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공공도서관 공간을 단일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3개 요인이 상호간에 어떻게 연계되어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상호작용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사항을 도출한 것이다. 이 모형에서 각각의 요인을 연결하는 ‘이용자 가시성-이용 편의성-운영관리 동선’은 공공도서관 공간이 기능적으로 뿐만 아니라 동적이며 관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모형에서는 사서 측면(업무 동선, 가시성, 협업), 이용자 측면(접근성, 쾌적성, 심리적 안정감, 다감각적 환경), 서비스 측면(유연성, 확장성, 디지털 인프라, 배리어프리)을 종합한 세부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공간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하는 개별 요인의 나열이 아니라, 도서관의 운영 맥락 속에서 각 요인이 어떻게 우선순위를 갖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설계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AI 기반 서비스 확산, 지역사회 연계, 융복합 프로그램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공간이 단기적 수요 대응을 넘어 장기적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을 적용하였다.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이 제시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절차가 ‘요구 분석-공간 프로그램-개념 설계-기본 설계-실시설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은 ‘공간 프로그램’ 단계와 ‘개념 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 및 고려사항을 통해서, 현재까지 건축가의 의견이나 정책부서의 가시적 성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을 현장 사서 중심,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분석한 사례의 제한, 공공도서관 공간 요인 모형의 개념적 성격, 이용자·사서·서비스 사이의 연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Space Syntax와 같은 공간 분석 도구, 동선 추적 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증 연구를 통해 모형의 타당성과 적용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2018). 도서관 건축계획 기준 마련 연구 보고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 국립중앙도서관 (2023).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활성화 지원 최종보고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현오, 강민우, 김용승 (2018). 최근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특성 및 변화 고찰.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86-49.
- 김현오, 김용승 (2020). 최근 국내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12), 69-76.
- 노영희, 신영지 (2019). 자기설계전공기반 도서관 공간기획전공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1), 5-31. <https://doi.org/10.4275/KSLIS.2019.53.1.005>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 문화체육관광부 (2025). 2024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 출처:
<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30302000000.do?id=48970>
- 박성재 (2019). 스마트폰 무선신호를 이용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공간이용행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6(1), 295-313. <http://dx.doi.org/10.3743/KOSIM.2019.36.1.295>
- 박성재 (2023). 공공도서관 이용자는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1), 5-21.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1.005>
- 배동식 (2019).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과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4(1), 173-181. <http://dx.doi.org/10.35216/kisd.2019.14.1.173>
- 서유진 (2022). 공공도서관의 트윈세대 공간 조성에 관한 사서 인식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20(3), 87-98. <http://dx.doi.org/10.55063/KIYFE.2022.20.3.8>
- 이혜은, 신동희, 류희경, 전경선 (2021). 용산구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1), 315-334. <https://doi.org/10.14699/kbiblia.2021.32.1.315>
- 장윤금, 김세훈, 전경선 (2019).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현황 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161-183.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3.161>
- 정태권, 서현 (2022). 공공도서관 내 열람공간의 개방성 연구: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8(12), 55-63. <https://doi.org/10.5659/JAIK.2022.38.12.55>
- 지선, 장윤금 (2017). 공공도서관 공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및 요구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4), 461-48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4.461>
- 한국도서관협회 (2023). 2023 공공도서관 정책제안서. 출처:
<https://www.kla.kr/api/boards/6/posts/1112357/files/6290/download>
- Aabø, S. & Audunson, R. (2012). Use of library space and the library as plac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34(2), 138-149.

- Dalmer, N. K., McKenzie, P., Rothbauer, P., Martin-Yeboah, E., & Oswald, K. (2022). "Palaces for the People": Mapping public libraries' capacity for social connection and inclusion. Knowledge Synthesis Project Report, McMaster University.
- Hider, P., Garner, J., Wakeling, S., & Jamali, H. R. (2023). "Part of my daily life": The importance of public libraries as physical spaces. *Public Library Quarterly*, 42(2), 190-219. <https://doi.org/10.1080/01616846.2022.2092347>
- IFLA & UNESCO (2022). 2022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2022.
-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2016). Public Library Space Needs: A Planning Outline.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Dong Sig (2019). A study on the space composition and user satisfaction of public libraries: focused on the public library in Daegu. *Journal of the Korea Spatial Design Society*, 14(1), 173-181. <http://dx.doi.org/10.35216/kisd.2019.14.1.173>
- Chang, Yunkeum, Kim, Sehun, & Jeon, Kyungsun (2019). A study of public library Makerspace oper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3), 161-183.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3.161>
- Chi, Sun & Chang, Yunkeum (2017). A study on the young adult's perceptions and needs towards the public library spa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4), 461-48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4.461>
- Jeong, Tae-kwon, & Seo, Hyun (2022). A study on the openness of reading space in the public libraries: focused on the public libraries in Seoul.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8(12), 55-63. <https://doi.org/10.5659/JAIK.2022.38.12.55>
- Kim, Hyeon-O, Kang Min-Woo, & Kim, Yong-Seung (2018). A Review on the space organization of public libraries in the past decade. *Proceedings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86-49.
- Kim, Hyeon-O & Kim, Yong-Seung (2020). The change of recent public libraries' space organiz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6(12), 69-76.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23). 2023 Policy Recommendations for Public Libraries. Available: <https://www.kla.kr/api/boards/6/posts/1112357/files/6290/download>
- Lee, Hye-Eun, Shin, Dong-Hee, Ryu, Hee-Kyeong, & Jeon, Kyungsun (2021). Current operating status and activation plan of public library in Yongsan-gu.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1), 315-334. <https://doi.org/10.14699/kbiblia.2021.32.1.315>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2). 2022 Manual 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for Public Libraries. Sejong: Library Policy Planning Divis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5). Results of the 2024 national public library statistics survey. Available: <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30302000000.do?id=48970>
- National Center for Public Architecture Support (2018). Research Report on Establishing Architectural Planning Standards for Libraries. Sejong: National Public Building Center.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3). Final Report on Supporting the Revitalization of Public Library Construction and Operation.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Noh, Younghee, & Shin, Youngji (201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brary space planning major based on the self-designed maj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1), 5-31. <https://doi.org/10.4275/KSLIS.2019.53.1.005>
- Park, Sung Jae (2019). Analyzing library space use patterns in a public library through Smartphone WiF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1), 295-313. <https://doi.org/10.3743/KOSIM.2019.36.1.295>
- Park, Sung Jae (2023). How do library visitors use spaces in a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7(1), 5-21. <https://doi.org/10.4275/KSLIS.2023.57.1.005>
- Suh, Yoo Jin (2022). A study on the librarians' perception about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tween space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20(3), 87-98. <http://dx.doi.org/10.55063/KIYFE.2022.20.3.8>